『기독교사회윤리』 제12집
(2006) 75~96

한국교회 초기 혼인관(婚姻觀)에 대한 연구

애니 베어드(Annie L. Baird)의 『고영규젼(高永規傳)』(*Two Short Stories*) 를 중심으로

오지석 (경민대학 강사 / 윤리학)

Ⅰ. 들어가는 말

Ⅱ. 예비적 고찰 - 개화기 한국인들의 혼인모습
1. 혼인관의 변화
2. 혼례의 변화
3. 외국인에 눈에 비친 조선의 혼인모습

Ⅲ. 『고영규젼』 Two Short Stories에 나타난 혼인론
1. 나는 누구인가? 〈고영규젼〉: 전통 관습을 따라 살던 부부에서 기독교인 부부로
2.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부부의 모본〉 -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 기독교의 혼인관

Ⅴ. 나오는 말 - 한국교회 초기 혼인론 다시보기의 의의

• ABSTRACT •

This study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marriage's roles in early Korean church and Annie L. Baird's *Two Short Stories*(고영규전, 부부의 모본). Annie L. Baird's *Two Short Stories* emphasized self-identity and marriage. This narratives based on christian ethics.

During the 1890's~1910's Korean-christian faced on problems of marriage. There ware long-standing custom of early marriage and concubinage in this country. Korean Churches's leaders had set themeselves to solve these problems. But it was not easy.

For that reason Annie L. Baird attempted to solve it. It is the very narratives that she wrote *Two Short Stories*. In that place she had bring up the subject of marriage in Korea and Korean Church. And she said to ideal husband and wife. This is that Korean Church's leaders define one's position about marriag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Narrative Ethics as examining that Annie L. Baird's *Two Short Stories*.

Keywords: Annie L. Baird, narrative ethics, *Two Short Stories*, self-identity, marriage

Ⅰ. 들어가는 말

인간은 이야기하는 동물(a story-telling animal)이며, 또한 윤리적 동물이다. 이야기는 성품을 형성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야기는 그 자체로도 실제 생활에 있어서 윤리적 패러다임으로 제시될 수 있다. 좋은 삶의 모델을 보여 주는 이야기는 실행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윤리적 행동을 이해시키고 생활의 방향을 안내할 수 있다. 이야기 안에는 도덕적 가치, 성품, 그리고 이상이 내재되어 있다. 모든 이야기들은 가치를 제시하며, 전달하고, 내면화시킨다. 또한 이야기는 이야기 안에서 무엇인 선이며,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해석한다. 이야기는 각 공동체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어떤 가치나 신념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공동체의 구성원인 개인들의 삶을 형성시킨다. 기독교 윤리에 대해 '단순히 행위 결정 과정을 도와주는 이론이나 방법론으로 보지 않고 기독교의 이야기를 통하여 윤리 행위자의 성품을 형성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애니 베어드(Annie L. Baird, 安愛理)의 『고영규젼(高永規傳)』 *Two Short Stories*은 이야기 윤리(내러티브 윤리)의 전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자 애니 베어드는 이 이야기 속에 자의식 형성과 새로운 가치관, 문화적 신념, 행동의 양식, 그리고 변혁 또는 해방하는 힘을 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고영규젼(高永規傳)』은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복음을 전파하고 교인을 지도하며 봉착한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였던 혼인[1] 문제

1) "혼인과 결혼은 어떻게 다른가? 현재 혼인은 법률 용어 또는 인류학 등의 학술용어로 쓰이고 결혼은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처럼 남녀가 부부 관계를 맺는 행위 또는 결혼 생활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그러나 결혼은 근대에 들어와 새롭게 정의되기 시작한 혼인 관념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번역된 말로, 일제 강점기 이전의 문헌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권순학, 「혼인과 연애의 풍속을 내면서」, 국사편찬위원회 『혼인과 연애의 풍속』, 서울: 두산동아, 2005, 7쪽. 논자는 이 글에서 권순학의 견해에 따라 '혼인'이라 표기하기로

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이다. 『고영규전(高永規傳)』 *Two Short Stories*은 <고영규전>과 <부부의 모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자는 이것을 각각의 전혀 다른 이야기로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로 즉, "됨"(being)과 "행함"(doing)의 관계로 이해하려고 한다. 또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교회 초기 혼인관을 살펴볼 것이다.

Ⅱ. 예비적 고찰 – 개화기 한국인들의 혼인모습

1. 혼인관의 변화

조선사회를 지배한 이데올로기는 유교였다. 그리고 조선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은 효(孝)와 경(敬)을 강조하는 가족윤리와 그것을 뒷받침 하는 혼인에 대한 입장이었다. 이런 입장은 『주역(周易)』 서괘전(序卦傳)의 "먼저 천지가 있는 다음에 만물이 있고, 부자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군신관계도 성립한다"[2]라고 언급하고 있는 데에서 발견할 수 있다. 곧 '부자' 관계에 앞서서 '부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사례(四禮)[3]를 중심으로 하는 가례(家禮)에서는 혼례(婚禮)를 근본으로 삼는다. 곧 혼례가 바로잡히지 않고 부부의 윤리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부

한다.

2) 『周易』, 「序卦傳」, 右上篇 "有天地然後 有萬物, 有萬物然後 有男女, 有男女然後 有夫婦, 有夫婦然後 有父子, 有父子然後 有君臣, 有君臣然後 有上下, 有上下然後 禮義有所錯"

3) '관혼상제(冠婚喪祭)'는 각각 성인식·혼인·장례·제사를 뜻한다. 관례는 머리에 갓을 써서 어른이 되는 의식이다. 옛날에는 남자 나이 20살이 되면 관례를 행하고, 여자 나이 15살이 되면 머리에 비녀를 꽂았다. 혼례는 혼인하는 예법, 상례는 상중(喪中)에 행하는 예법, 제례는 제사지내는 예법이다. 『소학감주(小學紺珠)』 인륜류(人倫類)사례에, 사례는 관혼상제라 했다. 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83087.

자의 윤리, 가족의 윤리, 사회의 윤리 모두가 다 붕괴된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왜 혼인하는가?', '혼인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 조선사회에서 혼인의 가장 큰 목적은 '조상 제사를 받들고 후손을 계승하기 위한 것[奉祭祀 繼後嗣]'이라 선언한다.[4] 또한 조선시대 여성교육서인 『내훈(內訓)』에서는 "아들이 자기의 처가 마음에 마땅할지라도 부모가 기뻐하지 않으면 내보내야 하고, 자식이 자기의 처가 못마땅하게 여겨지더라도 부모가 '이 아이는 나를 잘 섬긴다'하고 말씀하신다면 아들은 부부의 예를 행하여 몸을 바쳐 집안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한다"[5]며 남녀의 혼인과 부부됨의 출발을 부모에 대한 효에 두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유교의 입장은 서학의 등장과 개화기 개신교의 전래를 통해 심각한 도전을 받았다.

18세기 말과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조선의 서학은 유교의 윤리체계와 많은 충돌을 하게 된다. 특히 서학의 남녀에 대한 입장이나 혼인관은 유교와는 이질적인 것이었다. 즉 남자와 여자는 모두 차별 없는 천주의 소중한 피조물이라는 서학의 평등적 창조관은 특히 당시의 일상에서 기능하고 있던 여성관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서학이 양반층 부녀자에서 중하층 부녀자에 이르기까지 열렬히 수용할 수 있게 한 동인이었다.

조선천주교인들에게 서양의 윤리를 알려준 빤또하(Didace De Pantoja)의 『칠극(七克)』[6], 신자가 지켜야 할 생활규칙을 모아 놓은 『회

4) 금장태, 『유학사상과 유교문화』,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1. pp.185~188.

5) 소혜왕후 한씨, 오영석 교주, 『내훈(內訓)』, 서울 : 문조사, 1986. p.53.

6) 빤또하(Didace De Pantoja: 龐迪我)는 『칠극(七克)』 제6권 방음(坊淫)편 혼취정의(婚娶正議-결혼의 바른 뜻)에서 "제가 태어났던 지역의 모든 나라의 풍속은 그 어느 곳이나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짝을 짓는 것을 바른 법도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국왕으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의 지아비는 다만 한 사람의 지어미만을 짝으로 맞이하는데, 감히 이를 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어미가 죽으면 다시 아내를 맞아들일 수 있을 뿐, 첩은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서학의 혼인관을 피력하고 있다. 龐迪我,박유리 역, 『七克』, 『칠극』, 서울: 일지사, 2005, 366~367면.

장규조(會長規條)』(1839)[7], 일반인들이 교리를 노래로 부른 『천주가사』를 보면 서학의 혼인에 대한 입장이 나타나 있다. 혼인에 있어 개인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고, '일부일처제'를 확립하고 '축첩제', '과부개가금지'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서학의 입장은 동학 지도자들과 이후 전래된 기독교(프로테스탄트)의 가족윤리와 동질적인 것으로, 개화기 동안에 개화 인사들의 담론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8]

2. 혼례의 변화

조선시대에 유교식 절차를 중시하던 혼례는 조선 말기가 되자 기독교라는 새로운 사조의 영향으로 점차 새로운 양상으로 변해갔다. 즉 절차의 간소함 때문에 이른바 개량 혼인식 또는 신식혼례[9]가 구식 혼례를 대신하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인 유교식 혼례를 제대로 치루기 위해서는 많은 경비가 소요되었다. 그래서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을 제외하고는 그나마 일생에 한 번 있는 혼례마저도 제대로 치루지 못했던 조선 말기에 생긴 혼례식의 형태인 복수결혼(福手結婚)[10]이 성행했다. 이 혼례

7) 김정숙의 「조선후기 서학수용과 여성관의 변화」에서는 1921년에 간행된 『회장직분』과 1913년에 간행된 『회장의 본분』과 별 차이가 없어서 『회장직분』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것을 제시하고 있다. 김정숙, 「조선후기 서학수용과 여성관의 변화」, 韓國思想史學會, 『韓國思想史學』, 제20집, (2003) 40쪽.

8) 백종구, 「초기 개신교 선교부의 사회윤리」, 한국교회사학연구원, 『敎會史學』, 제 I권, 제 1호(2001), 142쪽 참고.

9) "신식 결혼은 선교사 아펜젤러(Appenzeller, H. G)의 주례로 1888년 3월 정동교회당에서 기독교식으로 치러진 한용경과 과부 박씨의 결혼식이 처음이라 한다. 이를 '예배당 결혼'이라고도 불렀는데, 신랑, 신부 앞에서 목사가 결혼에 관련된 성경구절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여 '결혼 증빙'이라는 결혼 증명서에 결혼 당사자뿐만 아니라 친권자, 주례, 증인의 도장을 찍는 것으로 결혼한 사실을 서로에게 확인시켰다. 이 같은 신식 결혼식은 기독교 전파에 따른 교회 설립으로 점차 늘어갔다."(신영숙, 「신식 결혼과 변화하는 결혼 양상」, 국사편찬위원회 『혼인과 연애의 풍속』, 서울 : 두산동아, 2005, 206쪽)

10) 복수결혼(福手結婚)은 작수성례(酌水成禮)라고 불려지기도 했다.

식은 나중에는 보편화되어 양반들조차도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이 복수결혼을 행했던 것 같다. 이것은 보다 합리적인 생활을 요구했던 기독교 교리의 뒷받침으로 이러한 경제적인 이유에서 생긴 복수결혼이 널리 행해졌던 것이 아닌가 보여 진다.[11]

한편 천주교에서는 신부의 집전으로 혼배성사(婚配聖事)가 행해졌으며, 천도교에서는 독자적 신식 혼례 방식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또한 1900년대 들어서는 법사의 주례로 불교식의 '불식화혼(佛式花婚)'이란 개량 혼례가 퍼졌다. 이 밖에도 근대적 사회 운동을 벌리고 있던 계명구락부 회원들이 올렸던 고천식(告天式)결혼도 광복 후까지 계속 보급된 가장 간략한 결혼 방법이었다. 교회, 절, 공공장소에서 한 신식혼례는 통칭 '사회 결혼'으로도 불렸는데, 1920년대 초기가 되면 장소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이 행하였다.[12] 신식혼례의 등장은 경제적 이유와 기독교의 영향으로 당시 계몽운동이 전통 혼례를 지속적으로 타파해야 할 구습으로 인식하였던 점도 무시 할 수 없었을 것이다.

3. 외국인에 눈에 비친 조선의 혼인모습

19세기 말 서양인의 눈에 비쳐진 혼인에 대한 기록들이 있다. 대부분 기독교 선교에 대한 보고이거나 우리나라의 풍습을 경험하며 느낀 경이감을 기록한 여행보고서 수준이다. 그 주요 내용은 조혼(早婚)과 가부장권에 의한 혼인결정, 그리고 혼례식과정과 첩, 과부의 생활 등에 나타나는 여성을 중점적으로 관찰하고, 남녀차별 현상에 대한 놀라움을 서술하는 것이다.

---

11) 서울육백년사, 신식혼례
http://seoul600.visitseoul.net/seoul-history/sidaesa/txt/6-9-5-1-1-1.html

12) 신영숙, 앞의 글, 198~201쪽.

한국선교초기 여성과 교육문제에 관심과 애정이 많았던 스크랜튼 부인(Mrs. M.F. Scranton)은 ≪The Korean Repository≫ 1898년 8월호에 실린 “Grace Wedding(은혜의 혼인)”에서 서울 상동 달성교회당에 다니는 은혜라는 소녀의 혼례식에서 참석하여 당시 혼례식의 절차, 혼례복 등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비친 신부의 모습은 다른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괴상망측하게 그려져 있다.[13] 그리고 다니엘 기포드(Daniel Lyman Gifford 한국명 奇普)의 『조선의 풍속과 선교』(Every-Day Life in Korea)에는 당시 전통적인 혼례식 장면이 그려져 있다.[14] 이에 비해 E. J. 오페르트의 『금단의 나라 조선』은 일부다처제로 이해될 수 있는 가족제도와 여성의 지위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 있다.[15]

개화기라고 통칭할 수 있는 이 시기는 관습으로 인정되었던 기존의 유교의 부부윤리(혼인관)와 개화 인사들이 지향했던 새로운 윤리의 만남이 본격화 되었던 때이다. 특히 서구의 기독교의 가족윤리가 조선에 소개되면서 남존여비의 남녀관과 이를 바탕으로 한 내외법, 축첩제도, 과부의 개가금지, 조혼 등의 가족제도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었다.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타파는 조선이 문명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선결과제였다. 지식인들은 인습에 젖은 가족제도를 비판하면서 그 제도에 담긴 윤리의식의 타파를 주장하였고, 이것은 다시 조선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가족윤리의

13) 유영렬 · 윤정란, 『19세기말 서양선교사와 한국사회』, 서울: 景仁文化社, 2004, 178~179쪽.

14) 다니엘 기포드, 심현녀 옮김, 『조선의 풍속과 선교』,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49~52쪽.

15)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는 조선에서는 보편화된 제도이며 여자의 운명은 중국의 아녀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남자가 거느리는 여자들의 수는 그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중 · 하류 계층은 대부분이 부유하지 못하므로 한 가구에 한 사람 이상의 아내를 갖기는 어렵다. 조선의 특별한 혼례 의식은 알려진 바가 없다. 남자와 여자의 아버지나 친척 간에 돈이 오고 가면 남자는 여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올 수 있으며 그를 상품이나 물건처럼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다.” E.J. 오페르트, 신복룡 · 장우영 역주 『금단의 나라 조선』, 서울: 집문당, 2000, 114쪽.

식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다시 말해 유교적 질서에 입각한 기존의 가족윤리의식이 서구의 새로운 윤리의식으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16] 그러므로 이러한 서로 이질적인 두 윤리의 공존은 일상에서 혼돈을 자아내고 있었다.

이러한 혼돈을 기독교의 입장에서 정리하고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 애니 베어드의 『고영규젼』이다. 이 『고영규젼』을 이야기윤리의 접근법을 통해 한국교회 초기의 혼인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Ⅲ. 『고영규젼』 *Two Short Stories*[17]에 나타난 혼인론

『고영규젼』 *Two Short Stories*은 숭실대학을 창설한 배위량 선교사 부인인 애니 베어드(Annie L. Baird, 安愛理)가 기독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상적 부부의 모습을 <고영규젼>과 <부부의 모본>두 편으로 묶어서 전개하고 있는 창작한 소설집이다. <고영규젼>은 당시 교회가 혼인문제 즉, 조혼·새로운 윤리가 제시하는 부부관계와 관련된 당면한 과제들을 풀어가는 데 집중되었다면 <부부의 모본>은 교회 공동체가 제시하는 혼

16) 전미경, 『근대 계몽기 가족론과 국민생산 프로젝트』, 서울: 소명출판, 2005. 50쪽

17) 『고영규젼』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되어있다. 『고영규젼』에 대한 해제는 소재영의 글과 김경완의 책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고영규젼』의 원본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간단한 해제는 기독교문사에서 간행한 『기독교대백과사전』 제1권에 실려있다. 그리고 소재영·김경완이 엮은 『개화기 소설』(서울: 숭실대학교출판부, 2000)에 『고영규젼』(「고영규젼」, 「부부의 모본」)의 본문이 있다.
『고영규젼』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소재영, 「기독교의 전래와 한국문학」, 소재영외 『기독교와 한국문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김경완, 『한국소설의 기독교 수용과 문학적 표현』, 서울: 태학사, 2000.
김경완, 『고대소설과 개화기소설의 기독교적 의미』, 서울: 월인, 2000.
이길연, 『한국 근.현대 기독교 문학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2001.
김병학, 한국 개화기 문학에 나타난 기독교 사상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인론과 규례등을 이야기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저자인 Annie L. Baird(安愛理)는 『고영규젼』 *Two Short Stories* 에 앞서 『싯별젼』 *Story of Sait Pyel* (1905)과 『쟝자로인론』 *The Story of Old Chang* (1906)을 한글로, *Daybreak in Korea*(1909)을 영문으로 창작하였으며, Leigh Richmond가 쓴 『우유쟝ᄉᆞ의 딸이라』(1911)를 번역하였다. 저자의 작품들 속에는 개화의 물결이 한국 여성을 전통적 관습의 구속으로부터 풀어주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압제적인 혼인에 관한 불합리한 경향과 여성의 지위에 대한 관심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모든 이야기들은 가치를 제시하며, 전달하고, 내면화시킨다. 또한 이야기는 이야기 안에서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해석한다. 이야기는 각 공동체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어떤 가치나 신념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공동체의 구성원인 개인들의 삶을 형성시킨다.[18]

1. 나는 누구인가? <고영규젼>: 전통 관습을 따라 살던 부부에서 기독교인 부부로

<고영규젼>은 주인공 고영규의 인생에 대한 번민과 갈등, 보배의 수난과 인내 등 가정적인 문제에 대해 고영규, 길보배 부부가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참다운 부부상과 이상가정을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여기서 다루는 문제들은 삶의 의미, 조혼의 문제, 당사자의 의견이 배제된 혼인결정, 남아선호사상, 혼인교육부재, 새로운 윤리에 대한 갈망 등이다. 특히 고영규가 경험하는 자아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됨"(being)과 "행함"(doing)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18) 한기채, 「기독교윤리와 이야기」, 한국기독교윤리학회편, 『기독교윤리학개론』(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2005), 236~244쪽.

1) 자아정체성

주인공 영규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와 농사지으며 살아간다. 자연만물을 보며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져보기도 한다. 그는 인간의 삶이 짐승보다 나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자문해 본다. 그리고 사후의 문제까지 물음을 확장해 나간다. 이런 고민들은 결국 그가 세속적인 시련을 겪고 난 후,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다.

2) 새로운 윤리에 대한 갈망 : 조혼금지와 남녀평등사상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00년대 초반은 조혼제도의 부당함과 조혼금지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는 계몽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결실을 보아 갑오개혁 때 선언적인 조혼제의 폐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조혼금지 조칙이 반포되었다. 순종이 내린 조서에는 남자 만 17세, 여자 만 15세 이상이라야 가취(嫁娶)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조혼금지를 명시한 법제정과 지식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배층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게도 영향을 미치지 못해 현실 사회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19]

재한 선교부는 조혼과 축첩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조혼 풍속은 조선사회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파악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조혼은 성적으로 미숙한 결합으로 허약한 아이가 출산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둘째, 조혼은 학교공부를 방해한다. 셋째, 조혼은 결혼 후 불화의 원인이 된다. 넷째, 조혼은 첩제도와 매춘같은 음란한 풍속을 조장한다. 선교부는 한국 교인들이 그들의 자녀를 일찍 결혼시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일찍 결혼하게 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축첩제도는 남편 쪽에서 성적 순결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의미하였다. 성경은 축

19) 전미경, 앞의 책, 54~55쪽.

첩제도가 없는 일부일처제를 부부관계의 규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20)

이 소설은 주인공 고영규와 아내 길보배의 혼인연령이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13세 조실부모한 영규가 여러 해가 지나 혈기와 육체가 장성하여 지자 영규의 할머니는 '너는 웨쟝가가셔 안히를 ᄃᆞ려오지안ᄂᆞ냐' 고 말하고 있는 것과 '부모가 제 ᄯᅡᆯ이 ᄉᆡ집가지아니ᄒᆞ면 병신이라 닐ᄏᆞᆺᄃᆞᆷ을 밧을줄알아'등의 구절에서 당시 조혼의 풍습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대개 15,6세 이전에 혼인을 시켰던 까닭에 자녀들이 아직 자신들의 주장과 의견을 내세울 만한 성숙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21) 'ᄒᆞ로는 그 할마니가 사돈집에 가셔 사돈과 소경의게 ᄐᆡᆨ일ᄒᆞᆫ거슬 다의론ᄒᆞ고 도라와셔 잔치를 예비ᄒᆞ더라'와 '오직ᄒᆞᆫ갓 걱졍ᄒᆞᄂᆞᆫ거슨 부모가 나를 ᄉᆡ집보낼가 ᄒᆞᆷ이러니 ᄒᆞ로는 그뎡혼ᄒᆞᆫ남편 영규의할마니가와셔 제부모와 ᄒᆞᆷᄭᅴ 잔치날ᄐᆡᆨᄒᆞᆫ거슬의론ᄒᆞᆯᄉᆡ 보ᄇᆡ가 그말을드르니 ᄆᆞᄋᆞᆷ이 울울ᄒᆞ야 그일면ᄒᆞᆯ 방ᄎᆡᆨ만 ᄉᆡᆼ각ᄒᆞ고'라고 하는 데에서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부모가 마음대로 정혼하는 관례가 드러난다.

이렇게 혼인생활을 시작하다보니 혼인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보배가 "제가 아ᄃᆞᆯ을 나흐면 그남편의 ᄆᆞᄋᆞᆷ에 즐거워 ᄒᆞ리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나타난다. 여기에서 우리는 '출산하는 것만이 혼인생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여기는 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발견할 수 있다.

영규는 아내가 딸을 낳자 '돌계집'보다 못하다고 핍박하고 술을 먹고 외입을 하기 시작한다. 또 영규가 장날 길거리에서 매서인이 책을 팔며 환란을 면하는 책이라고 선전하는 말을 듣고 "우리계집ᄋᆞ ᄒᆡ낫ᄂᆞᆫ환을 면

20) W. M. Baird, "Should Polygamists Be Admitted to the Christian Church?" *The Korean Repository* 3(July-September, 1896): 194~198, 229~239, 256~266 백종구, 앞의 글, 141에서 재인용.

21) 김태길, 『소설에 나타난 한국인의 가치관』, Ⅰ, 서울: 문음사, 1986, 269쪽

케ᄒᆞᆯ수있을까"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또 전도지를 주며 복을 얻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말에 'ᄎᆞᆷ복된 아ᄃᆞᆯ 낫ᄂᆞᆫ법을 ᄀᆞᄅᆞ치랴나'하는 장면에서 당시 지배하고 있던 남아선호사상이 잘 드러나고 있다.

영규는 딸만 낳는 아내를 외면하고 외지(서울)에서 외입잡기를 하다가 가진 것을 모두 탕진하고 노름판을 전전하다가 순검에게 잡혀 감옥에 갇힌다. 감옥생활 중 기독교인이 된다. 기독교인이 되어서 보배가 돌아온 영규에게 '내가 계집ᄋᆞ히만 낫ᄂᆞᆫ거슬 용셔ᄒᆞᆯ수잇ᄂᆞ뇨'라고 말하자 영규는 '그런말은 ᄒᆞ지마시오 네가 단산ᄒᆞᆯ찌ᄭᅡ지 ᄯᅳᆯ만나흘지라도 내가 네타시라고다시 너를 욕ᄒᆞ지아니 ᄒᆞ리라'하고 답한다. 여기서 영규가 남아선호사상을 극복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22] 이것은 기독교의 윤리가 남녀평등사상과 일부일처제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는 외국인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고영규, 길보배 부부를 통해 기독교 전래 초기 단계에서 관습에 매여 미숙했던 기독교인의 실상과 의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당시 한국사회가 겪고 있었던 많은 사회적 문제들 중 실생활과 관련이 있으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들에 대해 논증과 설교의 방법이 아닌 이야기로서 접근하고 있는 점이 이 작품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다. <고영규전>은 "나는 누구인가", "됨"(being)에 대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2.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부부의 모본> –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 : 기독교의 혼인관

「부부의 모본」은 주인공 박명실과 양진주 부부중심으로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혼인관을 펼치고 있는 소설이다. 박명실과 양진주 부부의 이야기

22) 이길연, 『한국 근·현대 기독교문학 연구』, 서울:국학자료원, 2001, 131쪽

는 한국교회 초기 교인들과 일반인들에게 유교의 부부윤리에서 기독교의 부부윤리로 전환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앞서 다룬 「고영규전」이 이제 막 기독교로 개종한 부부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부부의 모본」은 어느 정도 기독교가 이 땅에서 자리 잡기 시작한 후 태어나서 성장한 기독교인 2세 부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의 기억들을 되살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자기 정체성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잘 이해 할 수 있다. 리차드 니버에 따르면 교회는 "자연의 세계처럼 공동의 기억과 공동의 희망 안에서 각각의 살아 있는 자아의 참여"이다.[23] 교회는 공동의 기억, 공동의 해석, 그리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한다. 기독교 공동체의 기본적인 활동은 우선 지난 이야기를 다시 말하는 것이다. 도덕적 반성에 있어서의 연속성과 방향은 행위자의 이야기나 그가 공유하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의 이야기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이야기는 각 공동체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어떤 가치나 신념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공동체의 구성원인 개인들의 삶을 형성시킨다.

이 이야기는 혼인과 관련된 제 문제들 즉, '정혼 또는 약혼 시기,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임신, 고부간의 갈등, 신혼부부들을 위한 권면 등에 대한 기독교 윤리의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23) H. Richard Niebuhr, *The Meaning of Revelation*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41). p.52.

1) 새로운 혼인윤리: 박명실과 양진주가 혼례를 교회가 제시하는 방식으로 준비함

박명실은 교회가 정한 혼인규례[24]에 따라 20세가 된 후 예수 믿는 집 규수 양진주를 신부로 맞기로 하기로 한다.[25] 그는 정혼시기에 혼인에 대해 많은 생각과 준비를 한다.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혼인을 준비하면서 먼저 정혼녀를 생각하며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세상의 이치나 습관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박명실의 생각에서 잘 나타난다.

"처녀의 정결ᄒᆞᆫ거슬 싱각ᄒᆞᆯ찌에는 스ᄉᆞ로 ᄆᆞᄋᆞᆷ에 작뎡ᄒᆞ기를 더러온 거슬 주고 맑고 정ᄒᆞᆫ거슬 밧ᄂᆞᆫ거슨 맛당치 아닌거시니 내가 더욱 더러운 일을 힝치아ᄂᆞᆯᄲᅮᆫ더러 ᄆᆞᄋᆞᆷ에 잇ᄂᆞᆫ 싱각ᄭᅳ지라도 정ᄒᆞᆫ것 밧긔는 아니 ᄒᆞ리라"(21쪽)

이것은 당시 관례적인 남성들의 정혼모습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24) <그리스도 신문> 1906년 1월 11자 "교회통신 -부산래신"은 혼인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불신자와의 혼인과 조혼을 금지하며, 혼인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할 것과 법적 혼인연령인 남자 만 17세, 여자 만 15세보다 2~3년 뒤에 할 것을 권면함 그리고 매매혼 금지 등이다. 정부에서 조혼을 금지시키기 위해 정한 혼인연령과 교회가 정한 혼인 연령이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14년 장로회 총회는 남자는 만 17세, 여자는 만 15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정하였다. 이듬해인 1915년 일제는 법정 혼인 연령을 만 나이를 넣지 않고 남자 17세, 여자 15세 이상으로 정하였다.

25) 노병선은 《대한크리스도인회보》 "엡웟청년회란"에서 조혼반대와 혼인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혼인론'을 펼치고 있다.
"우리 나라에셔 혼인 ᄒᆞᄂᆞᆫᄃᆡ 큰 폐단이 두가지가 잇ᄉᆞ니 첫지ᄂᆞᆫ 일즉 혼인 ᄒᆞᄂᆞᆫ것시라 …(중략)… 둘지폐단은 혼인을 부모가 작뎡ᄒᆞ여 주ᄂᆞᆫ 것시라 혼인이라 ᄒᆞᄂᆞᆫ거슨 두사ᄅᆞᆷ이 ᄇᆡᆨ년 고락을 ᄒᆞᆷᄭᅴ ᄒᆞ쟈고 약됴 ᄒᆞᄂᆞᆫ 거신ᄃᆡ ᄇᆡᆨ년 고락을 ᄒᆞᆷᄭᅴᄒᆞ쟈면 ᄆᆞᄋᆞᆷ과 ᄯᅳᆺ이 합ᄒᆞ며 둘지 학문과 지식이 ᄀᆞᆺᄒᆞ며 셋지 외양과 처디가 피ᄎᆞ에 대강은 ᄀᆞᆺᄒᆞ야 ᄒᆞᆯ거시여ᄂᆞᆯ …(중략)… 그 폐ᄒᆞᆯ 방약이 네가지가 잇ᄉᆞ니 一 남녀가 분별이 업셔 동등 권리가 잇ᄂᆞᆫ줄을 알아야ᄒᆞᆯ거시오 二 남녀간에 ᄀᆞᆺᄒᆞᆫ 학문으로 ᄒᆞᆫ 학교에셔 공부 ᄒᆞ여야 ᄒᆞᆯ거시오 三 부모가 압제로 혼인을 뎡ᄒᆞ여 주지 아닐거시오 四 혼인ᄒᆞᄂᆞᆫ 년긔를 뎡ᄒᆞᆯ거시라" 노병선, 「혼인론」, 《대한크리스도인회보》 광무3년 4월 19일자 5면. 한국감리교회사학회, 『죠션그리스도인회보』 2권, 서울: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1990, 93쪽.

할 수 있다. 또한 혼인의 순결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고 할 수 있다. 때로는 주변에서 그에게 "혹이 닐ᄋᆞ디 안히의 말은 듯지말나ᄒᆞ고 ᄯᅩ 만일 안히를 갓가히 ᄒᆞᄂᆞᆫ자는 조고마ᄒᆞᆫ 일밧긔는 못ᄒᆞᆫ다"라고 말하는 것에 관하여 이는 세속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간주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것은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생각이 드러낸 것이다.

박명실은 에베소서 5장 25절, 28~31절, 골로새서 3장 19절, 고린도전서 7장 4절을 통해서 자신의 혼인관을 세운다. 이는 전통적 혼인관을 대신할 기독교의 혼인관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특히 산에 올라가 '큰 나무(참나무)에 멀구너츌[26]'이 덮인 것을 보고 부부란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기독교의 부부관을 깨닫는다.

여주인공 양진주 역시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한 규수로서, 어머니에게 시집가서 행할 덕목에 관해서 묻자, 어머니는 에베소서 5장 22절~24절을 들어 "지어미 된쟈여 슌복ᄒᆞ기를 쥬ᄭᅴ 슌복ᄒᆞ듯 ᄒᆞ라 대개 지아비가 지어미의 머리된이 ᄯᅩᄒᆞᆫ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ᄀᆞᆺᄒᆞ니 친히 몸의 규쥬시라"고 가르친다. [27]이에 진주가 에베소서 5장 25절을 읽고 남편도 이와 같으면 순복하겠으나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다. 이에 진주의 어머니는 부부의 관계를 활을 가지고 '활등'을 남편으로 '활줄'을 아내로 비유한다. 즉 아내는 남편과 가족을 위해 희생 믿고 남편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효와 경을 중시하는 유교의 가족윤리가 아닌, 희생과 봉사 그리고 사랑으로 드러나는 기독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

26) '멀구'는 '머루'의 지방방언이다. 그리고 '너츌'은 넌출의 함경도 방언이고 넌출의 옛말이기도 하다. '멀구너츌'은 머루 줄기이다.

27)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이란 결국 중심을 일컫는 말로 교회와 그리스도가 일체를 이루듯이,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과 하나 되고 그에게 순종의 도를 행함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은 여기서 '순종'이란 의미는 남자는 주체로, 여자는 대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중심한 입장에서의 여성의 도리이지, 가부장적 봉건체제하에서의 불평등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길연, 『한국 근.현대 기독교 문학연구』, 서울 : 국학자료원, 2001, 137쪽.

한 새로운 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애니 베어드는 혼례를 치르기 전의 박명실과 양진주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 유가적인 전통 가정보다 기독교적인 새로운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2) 기독교의 부부관: 사랑을 매개로 한 인격과 인격의 만남

명실 내외가 아침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참다운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생활한다. 그러나 비록 예수를 믿으나 예전의 관습에 머무르고 있는 시어머니가 "네가 안히를 이ᄀᆞᆺ치 잇기면 오ᄅᆞ지 아니하야 뎌가 너를 사ᄅᆞᆷ아니라고 ᄒᆞ야 안히의 직분을 경홀이녁여 제고집대로만 할 것"이라며 고부간의 갈등을 야기한다. 시어머니는 '예수를 믿으나 구습을 따르는' 사람으로, 이것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서도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것은 효와 경을 중시하는 사회질서에서 흔히 드러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부부의 평등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명실은 어머니에게 "지아비가 지어미를 너그러히 ᄃᆡ졉을 아니 밧을 수 업소이다 오직 부부간에 ᄒᆞᆯ 덕목은 둘이 다 ᄌᆞ긔셩픔을 닥고 허물을 곳쳐 피ᄎᆞ 즐겁게 행복을 영위해야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 있다. 잘못된 부부관계는 남편은 아내의, 아내는 남편의 허물만 보며 자기만 즐거워하려는 이기적인 관계로, 그와 같은 관계에서 벗어나 부부가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28] 이것은 설혹 한쪽이 잘못할지라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또한 부부 서로에게 불화가 있을 때는 피차 위태로움을 깨닫고 곧 하나님께 기도하고 뉘우치며 용서하는 모습이 새로운 부부윤리라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명실의 부부가 화목하고 또한 진주가 태아를 갖게 되어 분만이 가까웠

28) 이길연, 같은 책, 138쪽.

음에도 시어머니의 질투는 계속된다. 진주의 몸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남편의 말에 따라 힘든 일을 하지 않게 되자 그 시어머니는 "노ᄒᆞ야 ᄒᆞᄂᆞᆫ말이 이러케 게으르ᄂᆞᆫ 며ᄂᆞ리는 처음 보앗다 너는 밥만먹고 일은 아니ᄒᆞ겟ᄂᆞ냐 어서 셔답을 가지고 시ᄂᆡ에가셔 ᄲᆞᆯᄂᆡ ᄒᆞ여오라"고 다그친다. 전통적인 고부간의 갈등 내지는 혹독한 시집살이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가정불화의 형상화는 한국의 전통적인 관습에서 야기되는 폐단에 관한 작자의 현실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외국인 선교사인 작자가 한국인에게 새로운 사랑을 보급하고 교육시키고자 하는 시각에서 한국의 가족제도나 고부간의 갈등은 시정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작자는 이에 관한 해결책 역시 성경에서 찾고 있다. 명실은 아내를 데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가서 "사ᄅᆞᆷ이 쟝가가면 그 부모를 ᄯᅥ나 지어미와 합ᄒᆞ야 그 둘이 ᄒᆞᆫ육테가된다 ᄒᆞ신말ᄉᆞᆷ을 싱각하여보니 내 ᄉᆞ랑ᄒᆞᄂᆞᆫ 모친이라도 우리부부의졍을 갈을수없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엿볼 수 있는 작자의 의식이 동양적인 사고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동양의 유교적인 사고체계로는 '효는 만행의 근본'으로 부모에 대한 효는 부부의 도리보다 앞선다. 그러나 작자는 부부의 도리가 부모를 위하는 효보다 앞선다고 여긴다.[29]

애니 베어드는 다음과 같은 말('ᄇᆡ필된 부부들과 쟝ᄎᆞᆺ 혼인ᄒᆞᆯ 남녀들에게 전하는 말')로 경계를 하며 부부가 행할 덕목을 제시한다.

> 부부둘이 다 서로 잇기고 서로 ᄉᆞ양ᄒᆞ며 피ᄎᆞ ᄌᆞ복ᄒᆞ야 용셔ᄒᆞ며 서로 ᄎᆞᆷ고 견ᄃᆡᄂᆞᆫ거시오 ᄯᅩ 지어미 된쟈는 그 지아비의 됴화하고 뮈워ᄒᆞᄂᆞᆫ거슬 알고 아ᄂᆞᆫ대로 제의 힝지거동과 집일을 잘 단쇽ᄒᆞᆯ거시오 지아비 된쟈도 지어미의게 정의를 베프ᄂᆞᆫ것 밧긔ᄂᆞᆫ 그 ᄆᆞᄋᆞᆷ을 감동케ᄒᆞᆯ 권능이 업ᄂᆞᆫ줄 알터인ᄃᆡ 도로혀 지아비 된쟈는 제주머귀 힘만밋고 ᄯᅩ 지어미된이는 그지아비를 거

29) 위의 글, 138~139쪽.

> 스리는것과 샹거가 얼마나 크리오 이 경계대로 힝ᄒᆞ면 부부가 후세샹 락원에 드러가셔 영원ᄒᆞᆫ 복을 누릴ᄲᅮᆫ만 아니오 이류츄ᄒᆞᆫ 세샹에 잇 슬ᄯᅡ라도 락원을 ᄆᆞᆫ들고 그 가온ᄃᆡ 잇슬수 잇스리니 불구에온 죠션나라에도 이 ᄀᆞᆺᄒᆞᆫ 금슬지락으로 집집이 치우기를 ᄇᆞ라노라(36쪽)

이것이 저자 애니 베어드가 조선사회에 전하고 싶었던 기독교의 혼인에 대한 생각이었다. 즉 그는 유교의 윤리가 삶과 죽음의 세계까지 지배하고 있던 조선사회에 낯설기만 기독교의 윤리를 이야기라는 그릇에 담아서 한국교회 초기 혼인관을 확립하고자 했다.

Ⅴ. 나오는 말 – 한국교회 초기 혼인론 다시보기의 의의

20세기 후반과 21세기의 성(性)과 관련된 기독교 윤리학의 주제 중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 아마도 '혼인'에 관한 것일 것이다. '이혼', '성정환', '동성애', '양성애', '혼전순결', '혼외정사', '성매매', '포르노', '성과 매스 미디어' 등 이런 문제들에 비해 '혼인'의 문제는 뒷전에 밀려 있는 것 같다.

기독교인들에게 '혼인이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속하는 것이고 남자나 여자가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또 서로를 주면서 돕는 배필(창 2:18)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30]이다. 또한 혼인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을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으며 지상에 사는 남편과 아내가 결합하여 행복과 기쁨을 가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혼인은 상호보완적 인격의 형성을 통해 인간의 완성에 기여한다. 혼인은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있어서 혼인은

30) 총회예식서수정위원회편, 『표준예식서』,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206쪽.

생리적 욕구 충족수단이라기보다는 인격과 사랑이라는 하는 맥락에서 이해된다. 혼인은 인격과 인격이 한 몸으로 만나는 것이다. 31)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이혼에 대한 의식조사를 한 한국갤럽사의 1999년 보고서에 의하면, 비기독교인은 43.1퍼센트가 기독교인은 35.9퍼센트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32) 2005년 한신대 학술원 신학연구소 '현대 한국인의 문화의식 설문조사' 발표에 따르면 혼인의 당위성에 대한 물음에서 '꼭 해야 한다'가 35.1%, '가급적 하는 것이 낫다'가 37.8%, '꼭해야할 필요가 없다'가 27.1%로 조사됐다. 기독교인은 '꼭 해야 한다'가 43.7%, '꼭 해야 할 필요는 없다'가 20.2%로 결혼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일반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33) 위와 같은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여 특별히 다른 것이 없다. 현재 한국사회는 혼인에 대한 전통적 개념은 무너져 가고, 그 이해는 점점 그 구속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기독교 윤리학계가 다시금 주목해야 할 문제가 혼인에 관한 것이 아닐까 한다.

한국교회초기부터 고민한 문제들 가운데 혼인에 관한 것은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리고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세계관을 고취하며 구습에서 벗어나는 데 가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혼인문제이다. 그런 고민의 흔적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애니 베어드의 *Two Short Stories* (『고영규전(高永規傳)』)이다. 애니 베어드는 당시 사회의 혼인과 관련된 문제들을 "관찰된 역사"에 머무르지 않고 "경험된 역사"의 차원까지 이끌어 냈다. 그는 동시대인과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기독교인의 부부관, 이상적 가정에

31) 문시영, 『기독교 윤리 이야기』, 서울: 한들, 1997, 135~136쪽
32) 신원하, 『교회가 꼭 대답해야 할 윤리 문제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1, 47쪽
33) '기독교인/일반인 의식구조 설문조사 발표...한신대 학술원 신학연구소', 크리스천투데이, 2005년 5월 7일자,http://blog.naver.com/jjkkhh2232에서 재인용.

대해 바로 인식하고 실천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참고문헌

『성경전서』, 개역

『주역』

배부인,『고영규전高永規傳』(Two Short Stories), 경성: 야소교서회, 1911.

소재영・김경완 엮음,『개화기 소설』,서울:숭실대학교출판부 , 2000.

권순학,「혼인과 연애의 풍속을 내면서」,국사편찬위원회『혼인과 연애의 풍속』,서울: 두산동아, 2005.

금장태,『유학사상과 유교문화』,파주:한국학술정보 , 2001.

김경완,『한국소설의 기독교 수용과 문학적 표현』,서울:태학사 , 2000.

김경완,『고대소설과 개화기소설의 기독교적 의미』, 서울: 월인, 2000.

김정숙,「조선후기 서학수용과 여성관의 변화」, 韓國思想史學會,『韓國思想史學』, 제20집 , 2003.

김태길,『소설에 나타난 한국인의 가치관』Ⅰ , 서울: 문음사, 1986.

문시영,『기독교 윤리 이야기』,서울:한들 , 1997.

백종구,「초기 개신교 선교부의 사회윤리」, 한국교회사학연구원,『敎會史學』, 제1권, 제1호 (2001).

소재영외,『기독교와 한국문학』,서울:대한기독교서회 , 1990.

소혜왕후 한씨, 오영석 교주,『내훈(內訓)』, 서울: 문조사, 1986.

신영숙,「신식 결혼과 변화하는 결혼 양상」, 국사편찬위원회『혼인과 연애의 풍속』, 서울: 두산동아, 2005.

신원하,『교회가 꼭 대답해야 할 윤리 문제들』,서울:예영커뮤니케이션 , 2001.

유영렬・윤정란,『19세기말 서양선교사와 한국사회』,서울 : 景仁文化社, 2004.

이길연,『한국 근・현대 기독교문학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2001.

전미경,『근대 계몽기 가족론과 국민생산 프로젝트』,서울: 소명출판, 2005.

한기채, 「기독교윤리와 이야기」, 한국기독교윤리학회편, 『기독교윤리학개론』,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5.

龐迪我, 박유리 역, 『七克』, 『칠극』, 서울 : 일지사, 2005.

다니엘 기포드, 심현녀 옮김, 『조선의 풍속과 선교』,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E.J. 오페르트, 신복룡 · 장우영 역주, 『금단의 나라 조선』, 서울 : 집문당, 2000.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학예과,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고문헌목록』, 서울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05.

총회예식서수정위원회편, 『표준예식서』,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한국감리교회사학회, 『죠션그리스도인회보』 2권, 서울: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1990.

H. Richard Niebuhr, *The Meaning of Revelation*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41).

서울육백년사, 신식혼례

http://seoul600.visitseoul.net/seoul-history/sidaesa/txt/6-9-5-1-1-1.html

크리스천투데이, 2005년 5월 7일자, http://blog.naver.com/jjkkhh2232

관혼상제 http://100.naver.com/100.nhn?docid=83087

KCI